

글 쓴 사람(書人)은 모진사리공 길지지와 사탁부의 언문 길지지이고, 비에 글을 새긴 사람(新人)은 탁부의 술도 소오제지와 사탁부의 모리지 소오제지이며, 비를 세운 사람(立石碑人)은 탁부의 박사이다. 이때에 하교(下敎)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죄를 얻으리라[천벌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거벌모라의 이지파 하간지와 신일지 일척이 그 해(年)에 (이 일을 마쳤다). 글자는 398자(字)이다.

제4절 기(記)

1. 굴(窟)

1) 성류굴

(1) 이곡의 성류굴기(李穀 聖留窟 記)

절이 돌벼랑 아래 긴 시내 위에 있는데 벼랑돌이 벽처럼 1천 자는 섰으며 벽에 작은 굴이 있는데 성류굴이라 한다. 굴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며 또 으스스하고 깊어서 촛불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절의 중으로 화를 들리고 인도하게 하였다. 또 뱃사람 중 출입하기에 익숙한 이로 앞서고 뒤서게 하고 들어갔다. 구멍 아가리가 좁아서 무릎으로 4, 5보(步)를 가야 좀 넓고 일어서서 또 두어 보를 가면 끊어진 벼랑이 세 길은 된다.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면 점점 평탄하고 높고 넓어지는데 수십 보를 가면 평지가 있어 두어 무(畝)는 되고 좌우로 돌 형상이 기이하다. 또 열 보쯤 가면 구멍이 있는데 북쪽 구멍 아가리가 더욱 좁아서, 엎드려 나가는데 아래는 진흙물이므로 자리를 깔아 젖는 것을 방지한다. 7, 8보를 가면 좀 트이고 넓어지는데 좌우 쪽이 더욱 기이하여 혹은 갯발 같기도 하고 혹은 부처 같기도 하다. 또 십 수 보를 가면 돌들이 더욱 기괴하고 그 형상을 무엇인지 모를 것이 더욱 많으며, 그 갯발 같고 부처 같은 것이 더욱 길고 넓고 크다. 또 4, 5보를 가면 불상(佛像) 같은 자도 있고 또 고승(高僧) 같은 자도 있으며 또 못물이 있는데 매우 맑고 넓이가 두어 무(畝)는 될 만하며, 그 가운데 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레바퀴 같고, 하나는 물병 같은데 그 위와 곁에 드리운 갯발이나 일산 같은 것이 모두 오색이 영롱하다. 처음에는 돌젓[鐘乳]이 엉긴 것으로 그렇게 굳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지팡이로 두드리니 모두 소리가 나며 그 모양이 길고 짧은 데 따라서 맑고 흐린 것이 편경(編磬)같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못을 따라 들어가면 기괴하다’ 하는데 나는 ‘이것이 세속 사람으로서

함부로 구경할 것이 아니라’ 하며 재촉하여 나왔다. 그 양쪽에는 또 구멍이 많은데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 ‘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 대답이 ‘아무도 그 끝에까지 가 본 사람이 없다.’ 하며 혹은 ‘평해군(平海郡) 바닷가에 이를 수 있다’ 하니 대개 여기서 20여 리이다. 처음에는 연기 묻고 더러워질까 해서 하인들의 의복을 수건을 빌려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 양치질을 하니 꿈에 화서국(華胥國)에서 놀다가 문득 깨달은 것 같았다. 일찍이 생각해보니 조물(造物)의 묘함을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내가 국도(國島) 및 이 섬에서 더욱 많이 보았다. 그것이 정말 자연히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짐짓 만든 것인가. 그것을 자연히 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도 그 형체 변화의 교묘함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인가. 그것이 또 짐짓 만든 것이라면 귀신의 공력으로 천만세를 두고두고 할지라도 또한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2. 누(樓)

1) 취운루(翠雲樓)

(1) 안축의 취운루 기문(安軸 翠雲樓 記文)

내가 황경(皇慶) 임자년(충선왕 4) 봄에 한 필 말에 몸을 의지하여 선사군에 놀았다. 고을 남쪽 흰 모개 평평한 독에 어린 소나무 수천 그루가 있는데 다복다복 사랑스러웠다. 내가 함께 노는 읍 사람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저 소나무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서 정자를 여기에 지으며 그 운치가 한송(寒松)·월송(越松)의 두 정자와 서로 갑을(甲乙)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 후 읍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소나무들이 잘 자라는지를 물었다. 태정(泰定) 병인년(충숙왕 13) 간에 존무사(存撫使) 박공(朴公)이 선사군에 새 누대를 짓는데 풍치가 아주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 장소를 물으니 곧 내가 옛날 본 그 어린 소나무들이 있던 곳이다. 항상 한번 이 누대에 올라서 나의 옛날의 뜻을 풀어볼 것을 생각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이 지역에 나와 진무(鎭撫)하게 되어, 다시 이 누대에 오르니 그 맑고 그윽한 경치야말로 이것이 진세염열(塵世炎熱) 간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었다. 대저 누정(樓亭)을 짓는 것이 높고 넓은 데 있지 않으면 그윽하고 깊은 데 있는 것으로서, 저것이 싫으면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싫으면 저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정의 보통 있는 일이다.

무릇 관동지방의 누대나 정자가 모두 높고 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유람하는 사람들이 높은 풍랑 파도가 거세 싫증이 나고, 몸은 질은[蒸] 안개에 지치게 된다. 그런데 이 다락에 올라서 그 맑고 그윽한 운치를 얻게 되면, 들판을 달리던 곤한 짐승이 밀림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고, 공중에 나는 지친 새가 무성한 숲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지극한 낙이 있으니 이것이 아마도 박공이 이 다락을 지은 뜻일 것이다. 박공으로 말하면 그 높은 정취(情趣)와 투철한 견식

이 나 같은 용렬 비루(卑陋)한 사람의 비할 바가 아닌데 이 다락의 지은 것이 우연히도 나의 지난날의 열은 소견과 서로 합하였으니 내가 기이한 경치 신비한 지경에 대하여 안목이 있다 하여도 괴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 놀던 일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지금 기(紀)[1기는 12년]나 되었으니, 소나무의 어리던 것이 모두 벌써 자랐을 것이다. 대저 사람으로서 소나무가 어린 것을 보고 또 그 성장해진 것을 보면 생각이 없을 것이라 하고 차마 그대로 말없이 지나칠 수가 없어 이것을 써서 기(記)로 한다.

3. 대(臺)

1) 주천대(酒泉臺)

(1) 만휴 임유후 기(萬休 任有厚記)

송정(崇禎) 기원 원년(1628)[인조 6년] 무진에 내가 서울에서 쫓겨서 울진현의 남쪽 촌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이 촌은 백암산의 북쪽 지맥(支脈)의 한 가닥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요, 임천(林川)이 구곡으로 흐르는 곳인데 동쪽[샘실]과 서쪽[구미동]에 인가 8~9호(戶)가 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돌다리가 있다. 왼편은 그 바깥이 바다이고 오른쪽은 천축산(天竺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장천굴(掌天窟)[성류굴]이 있다. 설두(雪竇)[누금동]와 몽천(蒙泉)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장천굴 아래를 돌아 전천(前川)에서 모였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 마을의 이름을 미고(米庫)라 하는데 곧 원효대사의 옛 자취이니[내 위에는 천량암(天糧庵)이라는 굴방이 있는데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자 바위틈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되 가량의 쌀이 나왔다고 한다. 기이하다고 하겠다. 내 위에는 몇 길이나 되는 석대(石垓)가 있으니 곧 백암산의 단애이다. 그 석대 위에 세 그루의 큰 소나무가 우뚝히 서로 버티어 서 있었는데 푸른 잎 붉은 줄기와 뱀같이 꿈틀거리는 모습의 절벽이 밑으로 소(沼)에 비치었다. 소의 넓이는 배 하나를 자유로이 용납할 만하고 깊이는 수십 척이나 된다. 소(沼) 앞에 한 작은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틈에는 늙은 소나무와 파리한 대나무가 섞여 있었다.

내가 이에 떠나지 못하고 이 동천(洞天)에 살면서 즐기고 근심을 잊었다.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내가 여기 온 것을 즐거워하면서 대 위에 술과 음료를 벌려 놓고 서로 나를 부르면서 마시니 내가 산건(山市)을 쓰고 야복(野服)을 입고 유현히 술이 얼큰해지자 술잔을 들고 북쪽을 돌아보며 가로되 “저 앞에 높다랗게 솟은 봉우리가 백련봉(白蓮峰)이며, 구름과 무지개 바깥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아득히 기이함을 드러내는 산이 천축산(天竺山) 부용봉(芙蓉峰)인가.” 하였다. 대저 대관령 동쪽 9개 군은 모두 산수가 아름다운 고장인데 내가 서울 있을 때 이곳을 다녀온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선향(仙鄉)에서 놀은 즐거움을 가졌고 호사자(好事者)는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서 전하고 노래하고 읊조려 이를 퍼뜨렸다.

돌아와서는 관동팔경하면 오로지 7읍만 이야기하고 문득 올진은 빠뜨려 일컫지 않아 내가 가만히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에 지금 이런 승경(勝景)을 보니 이른바 높고 밝은 것은 쉽게 좋아하게 되나 그윽하고 먼 것은 잘 알지 못함인가. 아, 창해의 광대함과 호수와 산의 뛰어난 올진 또한 가지고 있고 누·대·정도 있었다. 이를 보니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어느 지역인가. 8읍은 아니로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로지 이름에만 빠지고 조화로움은 적게 여기니 어찌 뜻에 찰 것인가. 비록 그러하나 이곳을 한번 올라가 보니 매우 상쾌하여 세상 어디에 어찌 산수(山水)의 얕고 깊음을 다하여 자득(自得)의 눈을 여는 것이 있는가. 그런즉 이곳을 보니 이 동네[洞府]는 넓고 한적하고 계곡은 그윽하여 그 아름다움은 이원(利愿)의 반곡(盤谷)과 같고, 깊고 그윽한 것은 무릉(武陵)의 도원(桃源)과 같으며, 산 빛은 아미산(峨眉山)의 괴이한 광채에 머물지 않고, 물은 망천(綱川)보다 못하지 않으니 선경(仙經)에서 말하는 단구(丹邱)나 현포(玄圃)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 일컫는 산수가 뛰어난 곳[煙霞別區]은 어찌 이를 이름이 아니라. 아름답도다 주천대여, 또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저.

좌중에 한 늙은이 있어서 오른손은 대(垚)를 잡고 왼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석산(石山)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 산과 이 산은 하나의 산이었는데 아득한 옛날에 냇물이 뚫어서 갈라버렸다. 그 까닭으로 서로 전하여 수천대(水穿垚)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탄식해서 하는 말이 “아, 그것은 주천대가 와전된 것이 아닌가. 천량암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마을을 쌀고(米庫)라고 이름하였은 즉 대의 이름 주천(酒泉) 또한 어찌 춘(春)과 주(酒)가 바뀌지 않는다고 논하랴. 높아지면 깎아지른 듯이 험하게 되고 흘러가면 광대하게 되니 이 모두가 흘러가는 물과 우뚝 솟은 언덕이 자연히 그러한 것이니 어찌 세속의 말을 가지고 본래의 것을 억지로 훼손하려 하는가.

주성(酒星)은 하늘에 그득하게 벌려져 있고 주천(酒泉)은 땅에서 나와 하늘과 땅을 끼고 있으니 어찌 [주천]이 가까운 이름이 아니리오. 패강(溟江)의 주암(酒岩)과 학성(鶴城)의 주조(酒槽)가 다 이러한데 지금 만약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책한다면 천량(天糧)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험한 길 타향살이[羈旅]하면서 매양 이 대에 올라 또한 흐뭇하게 즐겨 날이 다 하도록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잊었는데 하물며 지금 술이 샘처럼 있음에랴. 내 청컨대 산을 이름하여 소고산(小孤山)이라 하고 대를 주천대로 부르고자 하니 여러 부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니 모두 다 가로되 “좋다.” 하면서 술잔을 물에 씻어 다시 술 한 잔을 부어 나를 축수(祝壽)해 주면서 말하기를 “이 대가 먼 벽향(僻鄉)에 묻혀있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수천 년을 지냈다.

옛적 청한자(淸寒者)가 성류사에서 하룻밤을 쉬어 갔지만, 그 발자취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또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 선생이 이곳에서 자득하면서 무성한 풀은 베고 터진 곳은 벽돌을 수축하고 또한 힘써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대는 여기 와서 집까지 마련하고 온 마을 사람들

의 환영을 받으며 지내니 청한자나 남격암(南格庵)이 미치지 못한 바를 그대는 얻었으니 이 대가 생겨서 수천 년 만에 남옹(南翁)이 얻은 바 되었고 옹이 죽은 뒤 60여년 만에 그대가 와서 얻은바 되었으니 옹이 있음으로 해서 이 대가 알려지게 되었고, 그대가 옴으로 해서 이 대의 이름까지 짓게 되었으니 이 대의 흥폐가 어찌 있다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신이 아끼고 귀신이 감추었다가 그대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이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면 즐길 만한 곳이 이곳저곳뿐만 아니니 바라건대 그대는 이름을 지어 이 대의 빼어난 경치에 덧보탬이 있게 하라.” 하였다.

내가 이에 술잔을 들이마시고 잔을 돌려주면서 자리를 피하여 말하기를 “내가 국도(國都)에서 쫓겨나서 여기 오니 이곳 산수는 나를 받아 주었고, 손님과 교유할 수 없었지만 부로들이 와 주었으니 청한자가 미혹된 바를 나는 찾게 되었고 남격암은 일찍이 원했던 것을 나는 이루게 되었으니 이 어찌 불씨(佛氏)가 말하는 전생의 숙업(宿業)이요 인연이라 하지 않으리오. 내가 이름을 묶어 세상일에만 골몰하면 비록 세상 밖의 파도에 떠다니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것을 어찌 얻었을 수 있으리오. 비록 강산이라 하나 가히 기대할 만 것이 있도다. 내 비록 소홀하고 거칠지만 감히 부로들의 명을 따르지 않으리오.” 하였다.

드디어 서로 취하여 춤을 추면서 손짓하여 이르기를 “이 대에서 올라가면 돌이 겹겹이 쌓인 꼭대기에 바람이 우수수 부는 소리가 나니 ‘송풍정(松風亭)’이라 하고, 그 밑의 바위는 ‘무학암(舞學岩)’이라 하고, 냇물은 ‘족금계(簇錦溪)’라 하고, 좌우로 수면에 벌려진 절벽은 ‘창옥벽(蒼玉壁)’이라 하고, 벽의 북쪽에 있는 것은 ‘해당서(海棠嶼)’라 하고, 돌다리 동쪽에 상투처럼 생긴 봉우리는 ‘옥녀봉(玉女峰)’이라 하고, 고산 쪽으로 걸려 있는 것 같은 돌자갈 땅은 ‘비선담(飛仙榻)’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래톱은 ‘앵무주(鸚鵡洲)’라 하였다. 이름짓기를 마쳤으나 이것으로써 어찌 대의 승경을 다했다 하랴. 대의 천연한 기상과 자득(自得)의 취향은 오직 나와 부로가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히 더불어 아는 자도 속인(俗人)과 더불어 도를 말하기 어렵도다. 부로들이 듣고 흔연히 즐거워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 말을 이 돌벽에 새겨서 뒤에 오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청하건대 그대는 이 대의 기(記)를 써라.” 하였다.

4. 사단(社壇)

1) 아산영당(鵝山影堂)

(1) 아산영당 영건기(鵝山影堂營建記)

울진읍에서 북으로 몇 리(里)쯤 가면 아산(鵝山)[명도2리, 아치말]이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전날 삼척부사(三陟府使) 최공 한우(崔公 漢佑)가 은거(隱居)하던 곳으로 그 자손이 뒤를 이어 살아온 지가 어언 10여 대나 되었다. 금상(今上)[고종] 갑신년(1884)에 나의 종인

(宗人) 산오(山五) 국진(國鎭)이 훼손되고 흩어진 책자들을 고증하여 부사공(府使公)의 묘소에 비를 세우고 그의 사적을 수집하여 오래도록 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므로 온 고을 선비들이 모두 찬양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 뒤 4년이 지난 무자년(1888)에 산오(山五)가 또다시 초당 한 칸을 자기 집 왼편에 짓고 아들 학영(學永)을 시켜서 북으로 800리를 달려가 우리 시조(始祖) 고운(孤雲) 선생의 영정(影幀)을 모사(摹寫)해 오게 하여 동년 10월 상순에 경건히 모신 다음 매년 한 차례씩 제사를 올리기로 하였다.

한북(漢北)에 있는 선생의 영당(影堂)은 창건된 지 백년이 넘었는데 무진년(戊辰年)에 와서 철폐(撤廢)당하였지만 그 뒤 21년이 지난 오늘에 전신(傳神)[초상화(肖像畵)] 부분(副本)이 또다시 풍마(風馬)와 운차(雲車)를 타고 멀리 마당 한구석까지 옮겨져서 자손들의 사봉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대개 사람들의 공동된 심리는 서울에 가까운 곳을 요지(要地)라 하고 먼 곳을 벽지(僻地)라 하지만 세상과 서로 맞지 않으면 옛날 백이(伯夷) 같은 이는 북해(北海) 가에 살았고 태공(太公) 같은 이는 동해(東海) 가에 살았다. 순박한 옛날에도 오히려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검덕비둔(儉德肥遯)이 선생의 평소 뜻이었으니 이 혼탁한 세상이 자신을 더럽힐까 염려하는 영령정박(英靈精薄)이 어찌 생사의 간격(間隔)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산오(山五) 한 가정의 경사만이 아니라 중외(中外)의 온 종족(宗族)을 감화시켜 그들에게 효제(孝悌)의 본심(本心)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낙(樂)이란 그 나은 바를 즐기는 것이고 예(禮)란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천리의 자연스러움과 인심의 동일함을 증명할 만하다. 오늘날은 서양의 요기(妖氣)가 충만하고 갖은 사설(邪說)이 서로 더욱이 공격하여 임금을 몰라보고 어버이를 저버리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이러한 시대에 능히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추모하는데 독실(篤實)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는 산오(山五) 같은 이가 있으니 이는 인(仁)을 본성으로 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생각하건대 선생의 학문은 워낙 심원(深遠)하여 그 한계를 볼 수 없으며 그 시를 외고 그 글을 읽어보면 선생의 일생 동안 강론(講論)한 바는 요순공맹(堯舜孔孟)의 의(義)를 바르게 하고 도(道)를 밝힌 요결지훈(要訣至訓)이었고 고수(固守)한 바는 서·질·명·토3)의 고금을 통하는 대경대법(大經大法)이었다. 삼한(三韓)의 누곡(陋谷)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문야(文治)를 빛내어 후세에 그지 없는 혜택을 끼친 것이 바로 선생의 참 모습이다. 바라건대 산오(山五)는 이제 나의 할 일이다 끝났다 하지 말고 선훈(先訓)을 더욱 강론하여 좀 더 원대한 데 주력(主力)하고 이를 축적하고 계속하여 간단(間斷)없이 끝나나간다면 이번의 일이야말로 본말(本末)이 겸비(兼備)되고 경위(經緯)가 종합되어 위로는 조상의 업적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후손의 길을 개척할 것이며 자신과 가정에서 금세(今世)와 후세(後世)에 미쳐 그 보람이 그지없을 것이니 저 의식(儀式)과 문구(文具) 따위나 내세우는 것에 비한다면 그 대소와 경중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 또한 나와 산오(山五)가 공동으로 저야 할 무거운 임무로서 잠깐 사이라도 늦추거나 꾸물거릴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영당(影堂)의 흥폐(興廢)에 대한 대략과 마음속에 느끼고 있던 바를 서술하여 산오(山五)에게 주어 보내어 묘향(廟享)의 장고(掌故)[전례(典例)]에 만에 하나 마나 대비하려 한다. 무자(戊子)(1888) 중추(仲秋)에 후손 익현(益鉉)(1833~1906)이 삼가 기록하다.

5. 서재(書齋)

1) 거이재(居易齋)

(1) 현곡 유영선 거이재 기(玄谷 柳永善 居易齋記)

나는 가암거사(柯菴居士)인 전군(田君) 원식(元植) 유경(孺耕)과 같이 우리 간재(艮齋) 선생님을 함께 서해(西海) 상에서 섬겼다. 유경(孺耕)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세하게 알기를 좋아하며 공부에 뜻이 독실하였다. 얼마 후 선생님께서 돌아가시자 붓짐을 싸서 각기 동남으로 흩어졌다. 서로 보지 못하기를 삼십여 년이나 되어서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금년 봄과 여름이 교체할 무렵 유경(孺耕)이 백운산장으로 나를 찾아 왔기에 반갑게 맞이하여 그리던 정을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도가 더욱 어두워지는 것을 통탄해하기도 하고 늙으신 하느님이 무관심하게 계신 것 같다고 힐난하기도 하였다.

이야기하는 중에 유경(孺耕)이 나에게 거이재(居易齋) 기문을 재삼 부탁하였다. 거이재는 유경의 문하생들이 정사가 비좁아서 학도들을 수용하기가 불편해지자 한 동을 재건하고 유경이 선사의 수묵(手墨)을 모아 현판한 것이다. 산뜻하고 정결한 작은 초가는 원사의 집과 비슷하고 가득히 쌓인 도서는 업후의 장서와 같을 뿐 그밖에는 별로 특기할만한 다른 경물(景物)이 없다고 하였다. 희(噫)라! 거이(居易)란 뜻은 거하는 곳을 검소하게 하여 행하는데 부귀(富貴)와 빈천(貧賤)과 이해(利害)와 득상(得喪)은 오로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뿐 다른 어떠한 요행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대개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고의 정의(精義)로 다 할 따름이요 하늘의 힘이나 사람의 도움에는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사(子思)가 중용(中庸)에서 가르침을 내리신 바이요 또 유경이 난세에 처하여 문하생에게 힘쓰게 하는 바이니 거이재란 이름이야말로 가위 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옛날 군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 천지가 만물을 화육(化育)하는데 참여하는 공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천지 우주가 어두운 밤 같으며 그름 그 자체라서 성현이 욕을 당하고 예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현실이고 보니 더 이상 이보다 험한 난세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이(理)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뢰소리와 함께 모든 생명들이 잠을 깨고 생동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선생님의 도학(道學) 또한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환연히 빛날 것이다.

유경(孺耕)이 깊이 숨어 스스로 다스리면서 천연 자재한 천명에 순응하고 조금이라도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함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수련해 오던 것을 후생들에게 가르치기를 더욱 힘써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선생님의 존성지결(尊性旨訣)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따라서 거경주성(居敬主誠)의 공부에 깊이 탐구하게 되었으며, 다시 극기약정(克氣約情)의 방법에 힘을 쏟아 문하생의 자질에 따라 적절하게 인도하여 먼 훗날 치평(治平)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키우고 있으니 나는 마지막 과일이 그 씨앗을 먼 훗날에 꽃피울 준비를 하는 조짐이 되는 것 같이 거이재의 이름이 오늘부터 먼 훗날까지 유명하여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니 이 어찌 될 듯이 기뻐하며 이 글을 써서 힘쓰게 하지 않으리오. 이 말로써 나의 친구 남무실(南務實) 도형(道兄)에게 질증하기 바라네.

2) 소행재(素行齋)

(1) 석농 오진영 소행재 이건기(石農 吳震泳 素行齋移建記)

재(齋)의 이름을 소행(素行)이라 하였으니 무슨 뜻이 있겠는가? 목하(目下) 이 세상은 난세의 극(極)이라서 성현들이 서로 전하여 오던 도가 거의 종식되었으니, 선비된 자의 책임이 중하지 아니한가. 그 책임을 맡아 그 도를 다하기만 한다면 하늘의 도를 회복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이한 책모와 기이한 공이 없이는 조화의 행위를 빼앗고 기틀을 옮길 수 있겠는가. 오직 자기가 당면한 처지에서 자기 힘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바로 천지를 잡아 태극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마침내 그 공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옛 성현들을 보니 분명히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비록 조화를 빼앗고 기틀을 옮기는 것도 또한 가히 할 수 있겠다. 후세에 성인을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이 대목에서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 무술년 여름에 남군(南君) 진영(軫永)과 대년(大季)이 동문인 노헌구(盧憲九), 김원학(金源學), 주병례(朱秉禮) 등 많은 동지와 같이 신림(新林)의 덕은(德隱) 산중에다 공부하는 집을 지어 책을 보관하고 학업을 닦았다. 선사 간옹(艮翁)께서 소행(素行)이라 명명하고 시를 지어 그 뜻을 밝혀 두었으며, 난곡(蘭谷) 송(宋) 선생께서 기문(記文)으로 그 뜻을 더욱 확대 설명하였다. 12년 후인 신유에 정림(井林)의 비봉산(飛峯山) 아래 맑은 계곡으로 옮겨와서 조금 크게 지었고 지금까지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세한(歲寒)의 절개를 닦는데 더욱 힘쓴 사람은 두 남군과 임성순(林性舜), 이휘재(李徽在), 정연국(鄭然國), 남귀로(南龜老), 전원식(田元植) 몇 사람에게 불과하다. 정군(鄭君)이 여러 벗의 뜻을 모아 나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선사(先師)의 시와 난곡(蘭谷)의 글이 이미 있고 또 제군들이 열심히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가 전해지지 않을 것을

어찌 근심하랴. 내 구차하게 글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굳이 쓰게 하는 것도 명(命)이라 할 수 있으니 유씨(游氏)의 논(論)에서 그 대개를 알 수 있겠다.

무릇 군자와 소인을 알자면 명을 앞의 차이다. 명이 형통할 때에도 순리[居易]와 모험이 함께 통하고 명이 곤궁할 때에도 역시 모험과 순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명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버리고 추한 것을 택하니 애석하다. 그렇지만 운명이 형통하면서도 추한 것을 택한 자는 마침내 만세토록 반드시 궁할 것이요, 궁하면서도 좋은 것을 택한 자는 마침내 하늘의 도에 돌아가 세상을 바로 잡음에 이를 것이다. 운(運)에는 평탄과 파행이 혼재하여 왔다 갔다 한다지만 운명을 더불어 곱하고 뺄 수는 없는 것이다. 성인이 비록 명과 악에 관하여 드물게 말한다고 하였지만 대저 소인이 도를 해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면 군자를 내어 더불어 명을 기다리게 하니 천명의 이치는 지극하도다. 아! 군자는 난세를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난세에 처신할 수 없음을 근심하니 난세에 처하면 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도가 종식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 소행(素行)의 뜻은 참으로 크다 하겠다.

6. 정(亭)

1) 독송정(獨松亭)

(1) 현령 정필달의 독송정 기(縣令 鄭必達 獨松亭記)

독송정은 주씨(朱氏)의 마을 앞 계상(溪上)에 오래된 소나무가 고목의 자태를 자랑하고 암석이 오밀조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서(島嶼)에 위치하였다. 그 경광(景光)이 기성(箕城)의 월송정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승경(勝景)이었으나 세월 따라 나무도 죽고 정자도 허물어지고 독송정이란 이름만 전하고 있었다. 그 곁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었으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애석하다. 내가 공무의 여가에 이곳 고적들을 두루 돌아보았더니 많은 명승지가 폐허로 된 것이 허다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인력을 동원하여 그 나무는 복을 주고 그 정자는 다시 확장하였으니 이 역사(役事)를 실질로 총괄한 사람은 주현벽(朱炫璧)이었다. 정자의 크기는 삼십여 명이 앉아 놀 수가 있으며 북쪽에는 돌섬이 있고 섬 위에 다시 어린 소나무 몇 그루가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있기에 그 가치를 정지하고 흙으로 복을 주고 다듬어서 상층에 한 대(臺)를 두니 선구경색(仙區景色)이 환연히 새롭게 되었다. 그래도 공정이 미비한 곳이 있음이 아쉬워 이에 관속(官屬)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갔다. 해가 저물어 모래섬의 가을 경광이 사람을 붙잡기에 물가에서 돌을 쓰다듬으면서[臨流撫石] 술잔을 권하니 속진(俗塵)의 바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무엇으로 이 같은 참다운 취미에 비유할 수 있으리오. 어리둥절하면서 이 몸이 내 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드디어 시 한 수를 읊으며 어둑어둑한 뒤에야 돌아오게 되었다.

2) 망양정(望洋亭)

(1) 채수의 망양정기(蔡壽 望洋亭記)

이 정자는 여덟 기둥으로 돌렸는데 기와는 옛것을 쓰고, 재목도 새로운 것을 쓰지 않았다. 웅장하고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풍경 물색의 기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자의 조금 북쪽을 둘러 8간을 지으니 이름을 영휘원(迎暉院)이라 한다. 벼랑을 따라 내려가면 또 한 돌이 우뚝 솟아 그 위에 7, 8명은 앉을 만하며 그 아래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이름을 임의대(臨漪臺)라 한다. 북쪽을 바라보면 백보섬 밖에 위험한 사다리가 구름을 의지하여 그 위로 사람 가는 것이 공중에 있는 것 같으니 이름을 조도잔(鳥道棧)이라 하는데, 지나는 모든 사람의 유람 관광하는 낙이 이 이상 없다. 바람 자고 물결 고요하며 구름 걷고 비가 개일 때에, 눈을 들어 한 번 바라보면 동쪽이 동쪽이 아니요, 남쪽이 남쪽이 아닌데 신기루(蜃氣樓)는 보이다 말다 하고, 섬들은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가다가 큰 물결이 거세게 부딪히고, 고래가 물을 내뿜으면 은은하고도 시끄러운 소리에 하늘이 부딪치고 땅이 터지는 것 같으며, 흰 수레가 바람 속을 달리고 은산(銀山)이 언덕에 부서지는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면 고운 모래가 희게 펼쳐지고 해당화는 붉게 번득이는데, 고기들은 떼 지어 물결 사이에서 희롱하고 향백(香栢)은 덩굴 뻗어 돌 틈에 났다. 옷깃을 헤치고 한번 오르면 유유히 바다 기운(灝氣)과 더불어 놀아서 그 끝간 데를 오르며, 양양하게 조물주와 더불어 고단함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서 비로소 이 정자가 기이하고, 하늘과 땅이 크고 또 넓은 줄을 알게 된다. 아, 우리나라를 봉래(蓬萊)·영주(瀛洲) 산수의 고장이라 하지만 그 중에도 관동(關東)지방이 제일이 되며, 관동지방의 누대(樓臺)를 백으로 헤아리지만, 이 정자가 제일 으뜸이 되는 것으로서, 하늘도 감추지 못하고 땅도 숨기지 못하여 모습을 드러내어 바쳐서 사람에게 기쁨을 줌이 많으니, 어찌 이 고을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적어서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3) 연호정(蓮湖亭)

(1) 연호정 건축기(蓮湖亭建築記)

울진군 동헌(東軒)에서 수백 보 거리에 자연의 호수가 있으니 주위가 5리나 되고 깊이가 한길은 족하고 사면이 모두 산이요 중앙은 소(沼)로 되어 있는데 그 바탕이 진흙인지라 연꽃이 많이 피고 있다. 그러기에 울진군이 생기면서부터 연호정이라 부르면서 그 경치를 유상(遊賞)하고 관람할 수 있었으니 항주(杭州)의 서호(西湖)와 동정(洞庭)의 경호(境湖)에 비길만하다. 지난 무자년간에 죽존(竹尊) 박영선(朴永善)이 이 곳의 군수로 왔는데 시부(詩賦)에 뛰어나고 풍류를 아는 분으로 이 연호를 좋아하여 공무가 끝나면 사인교를 타고 자주 찾아와서 시를 짓고 감상하며 무척 아끼더니 인하여 북쪽 산언덕에다 작은 정자를 세워 두었

다. 그 후 풍우에 퇴락하여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황폐한 빈 터에 잡초가 우거진 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연호정의 옛터라고 지적하며 탄식만 해오더니 금년 봄에 뜻을 같이 한 고을 사람들이 주머니를 풀어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군 동헌을 보수할 때 쓰다 남은 목재와 기와를 수습하여 옛터를 손질하고 정자를 중건(重建)하니 그 규모가 여섯 간[六間]이나 되었다. 비록 조각이나 단청은 못 했지만 그래도 쉬면서 풍류를 즐길 만하니 인하여 현판(懸板)하기를 연호정(蓮湖亭)이라 하였다. 3개월여 만에 준공을 고하고 날을 잡아 낙성하니 아! 호수와 산이 명승이 되는 것과 정자와 대(臺)가 흥하고 폐함이 모두 때를 기다린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보다.

동정과 같이 큰 호수도 악양루(岳陽樓)가 지어진 후에 풍광(風光)이 새로워졌고 서호처럼 아름다운 호수도 누당(樓堂)이 생겨난 후에 한층 더 소문이 높았다. 만약 호수가 없다 해도 유관(遊觀)의미를 극대할 수 없고 이 정자가 없다면 관망하며 즐길 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호수와 정자는 서로가 짝이 되어 훌륭한 호수와 정자가 장안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글 짓고 글씨 쓰는 선비와 바람을 다루고 달을 그리는 나그네들이 매일 같이 시를 짓고 노래하며 장래가 끊어지질 않을 것인데 한쪽 호수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서 광활한 들녘에 적막하게 있으니 그것이 한(恨)일 뿐이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 고을 명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망양정(望洋亭)이 있어서 관동팔경(關東八景)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빈터만 남아 있는 실정이고 함벽정(涵碧亭)이란 곳도 이름만 지(誌)에 전하고 있을 뿐 흔적이 없고 홀로 이 정자만이 날아갈 듯 호상(湖上)에 임하고 있으니 끝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명소이다. 앞으로 이 정자에 오르는 자는 한번 둘러보고 이곳의 풍광이 범상치 않음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1942년 7월 16일

울진후인(蔚珍後人) 장규한(張奎漢) 삼가 씀

4) 일우정(一愚亭)

(1) 면암 최익현의 일우정기(勉菴 崔益鉉 一愚亭記)

한 개결(介潔)한 사람이 두어 칸 초가에 나물먹고 물을 마시며 선왕의 옷을 입고 고인의 글을 읽으며 명한 사람처럼 있는 것이 세상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지나는过客이 말하기를 “목하 하늘 아래에 사해의 넓은 곳에서 어디를 가나 양을 등지고 음을 지향해 가지 않음이 없어 중화(中華)의 도가 오랑캐의 학설로 변하게 되고 충효의 세족과 예의의 명문들이 모두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머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도를 높이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함이 자제들이 부형의 뜻을 좇고 수족이 자기 머리를 보호하듯 머리를 숙이고 복역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고원하게 가죽과 벼옷을 입고서도 존경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위치에 거하면서 옛 생각을 굳게 고집하고, 변화에 영합하는 것

도 알지 못하여 장차 재앙이 몸에 미쳐오는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인데 어찌 이다지 어리석단 말이요” 하였다.

주인이 깊게 한숨 쉬고 말하였다. “자네가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자네의 그 말을 꺾어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리석음(愚)이라는 것이 한 가지 것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지 않는가. 대개 사람 중에 재능이 출중하면서도 어리석음으로 자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능이 부족하면서도 잘난 척 하는 자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愚)는 안자(顔子)의 ‘불위여우(不違如愚)’와 같은 우(愚)에 해당된다.

백리해(百里奚)는 우(虞)나라에서는 어리석었지만, 진(秦)나라에서는 지혜로웠고 영무자는 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지혜로웠고 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어리석었으니 이 두 사람의 우(愚)는 지자(智者)의 어리석음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잘만 하여 자기 몸을 지킨다면 입신을 하여 이름이 높아지고, 일하게 되면 일이 순하게 풀려서 사업이 빛날 것이요, 집을 다스리면 집이 바르게 되어 인륜(人倫)이 밝아질 것이요,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편하여 백성이 잘살 수 있고, 아비를 섬기면 효가 될 것이고, 임금을 섬기면 충신이 될 것이니 어디에서도 의롭지 아니함이 없고 어디를 가도 형통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도(道)와 정(正)을 배반하면 천도와 인성은 착함만 있고 악은 없음을 알지 못하여 이(理)를 어기고 욕심에 쫓아 기회만을 엿보아 이(利)를 획득하지만, 하늘의 재앙과 사람의 재난의 종말은 피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채 권세를 흠치고 공(公)을 등지고 사(私)를 챙기다가 전복되는 화를 알지 못하며, 아울러 국가의 재난에도 미쳐서 장차 임금과 어버이에게 닥칠 것이니 이것이 모든 우(愚) 가운데의 우(愚)이며 불우(不愚)에 처하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지자(智者)의 우(愚)를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은 원치 않겠다.” 하였다.

과객이 머리를 숙이고 무연히 물러 나와 이에 그 정자의 이름을 일우정(一愚亭)이라 이름하였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장사문(張斯文)으로 이름은 주신(柱臣)이요 자는 군석(君石)이니 유문연원(儒門淵源)들과 종유(從遊)하고 있었다. 나같이 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청하는 것은 앞서 선부군(先府君) 월호공(月湖公)의 묘문(墓文)을 지은 바 있어 무릇 주인의 마음 속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7. 현

1) 해월헌(海月軒)

(1) 아계 이산해 기(鵝溪 李山海 記)

내한(內翰)[한림학사] 황군(黃君)[황여일(黃汝一)]이 마악(馬岳) 아래에다 조그마한 집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해월(海月)이라 했다. 나에게 정자의 기문(記文)을 청하니 나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사물은 그 본체(本體)를 잃지 않는 것이 드물다. 쇠보다 강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담금질하면 원형이나 각진 것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이 손 가는 대로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돌보다 더 견고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부수면 모래도 되고 가루로도 만들어 바람에 날릴 수도 있다. 바위나 산 그리고 드높은 봉우리라 해도 무너져버리는 것도 있다. 저 깊은 강수(江水)와 하수(河水)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라 할지라도 갈라 터지는 것이 있다. 그렇지만 유독 바다만은 그렇지 않아 못 시내들이 다투어 그곳으로 들어가도 넘쳐나지 않고, 고기들이 그것을 들어 마셔도 줄지 않으며, 파도치고 일렁이며 반대로 달리고 가로질러 지나가며 교룡과 고래들이 물을 뿜어대며 출몰하더라도 일찍이 갈라 터질 염려가 없는 것이다. 달이란 것은 하늘 가운데 있어서 뜬구름이 그것을 가리면 맑은 빛과 흰 광채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구름이 걷힌 뒤 그것을 바라보면 그 밝음은 예와 같다. 심지어는 언제나 차고 기우는 것과 월식의 변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몇 번이나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둥글고 밝음은 오랏수룩 더욱 새로워진다.

군자(君子)가 그것을 취함도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사람 마음의 허령(虛靈)함은 사물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소리와 빛깔 냄새와 맛이 가슴에서 녹여지고 분화(紛華)·명리(名利)가 밖에서 유혹하면 잠깐 사이에 황홀한 욕심이 만 번이나 바뀌게 된다. 진실로 자신을 잡음이 독실하지 않고 그것을 지킴이 조밀하지 않다면 마치 성난 파도가 치고 사나운 말이 돌진하듯 하여 그것을 잃지 않기가 어렵다. 이런 까닭에 군자가 마음을 잡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당겨 정돈하여 수렴하고 함양하여 어지럽게 자신에게 침범하는 외물(外物)로 하여금 자연스레 막아 엮드리게 하고 물러나 명을 듣도록 하여 감히 자신을 범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뒤라야 마음의 자리가 형철(瑩澈) 명백(明白)하여 구름이 태허(太虛)를 지나가나 그 자취가 없는 것 같이 되고, 거울에 끼인 티끌을 닦아내어 누(累)가 없는 것과 같이 된다. 더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을 만남이 무궁하며 수작(酬酢)도 복잡다단하여 취한 것처럼 꿈속처럼 두루 살피지 못하고, 기름과 불이 서로 타들어 연음과 잃음과 영화와 고초가 서로 어지럽게 이어지며, 슬픔과 환희와 걱정과 즐거움이 한결같지 않아서 아침저녁으로 구름과 비가 뒤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풍파가 몰아치기도 한다. 그러한즉 낭패로 뒤편가 가라앉기도 하고 더러는 넘어지고 어긋나고 잘못함을 면치 못해서 그 본심을 잃은 자도 많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군자만은 그렇지 않다. 유속(流俗) 가운데 뒤섞여 있더라도 그 뜻이 더욱 깨끗하고 환란의 창황 중에 처하더라도 그 지조는 더욱 확고하여 부귀해도 음탕하지 않고, 빈천해도 그 뜻을 옮기지 않고, 위무(威武)에도 굴복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쳐서 물결이 뒤집히더라도 차거나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달이 둥글었다가 기울어짐이 있더라도 마침내 그 본체를 잃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즉 못 사람들의 마음은 곧 강과 시내와 바위와 산과 쇠와 돌과 같은 유(類)요, 군자의 마음은 곧 바다와 달처럼 넓고 크고 높고 밝아 변치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대가 이미 이것으로 헌(軒)의 이름을 삼았으니 그 마음을 잡음에 있어서 이미 얻음이 있다는 것인지, 아마도 유속(流俗)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못 사람으로 돌아감을 매우 두려워하여 스스로 군자의 학문에 힘쓰겠다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서늘한 가을 고요한 밤이 되어 모든 사물이 소리를 죽이고 청동을 닦듯 둥근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 헌함(軒檻)에 기대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아도 천지사방이 상쾌하고 시원하며 맑고도 밝아서 한 점의 찌꺼기도 그사이에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창연한 빛깔과 밝은 정채(精彩)가 가슴속으로 모두 들어오리니 해월(海月)에서 헌의 이름을 취한 것이 어찌 크다 않겠는가.” 하였다. 황군(黃君)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헌의 기문은 이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하기에 드디어 그것을 적어서 돌려보냈다. 월 일에 기(記)하노라.

제5절 기적비(紀績碑)

1. 최한주의 기적비(崔漢柱紀績碑)

「1283년 고려 충열왕(高麗 忠烈王) 9년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할 때 명주군(溟州君) 최한주(崔漢柱)가 종군(從軍)하게 되었다. 동해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을 뜻밖에 만나 쇠뿔이 배 밑 바위 틈에 걸려 폭풍에 닻줄이 끊어지려 하자 수군(水軍)들이 당황했다. 한주(漢柱)가 항을 피우면서 하늘에 아뢰기를 “이 한몸을 희생하여 여럿의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하늘에 빌기를 마치고 쇠망치와 ‘정’을 가지고 짐작하기도 힘든 틈이 벌어진 바위를 찾아 격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닻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몸을 솟구쳐 물 위로 올라와 보니 배는 이미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떠 다니는 널빤지를 얻어 간신히 헤엄쳐 죽지 않고 살아났다. 혹은 전해오기는 자라의 등을 타고서 육지로 나왔다고도 한다.

향인(鄉人)들이 모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도 울진현(蔚珍縣)에 있